

2006학년도

목회학석사(M. Div.) 학위 청구 논문

稱義에 관한 칼빈의 견해와 트레트신조의 비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임 주 훈

稱義에 관한 칼빈의 견해와 트레트신조의 비교

본 논문을 목회학석사(M. Div.)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임 주 훈

임주훈의 신학석사(Th. M.)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6년 6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목 차

I. 서 론	1
A. 연구동기와 목적	1
B. 연구방법 및 과정	2
II. 칭의에 관한 칼빈의 견해	4
A. 칭의교리의 위치	4
B. 칭의의 기본개념	4
1. 칭의의 정의: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 선언’	5
2. 칭의의 수단: 신앙	6
3. 요약적 진술	10
C. 성경의 용례	11
1. 아브라함	11
2. 다윗	12
3. 사도 바울	15
4. 성경적 칭의의 요점	20
III.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견해	21
A. 트론티신조 (1545-1563년)	19
1. 칭의교리 내용	22
2. 요약 및 평가	26
IV. 칼빈의 견해와 카톨릭 견해의 비교	29

A. 공통점	29
B. 차이점	31
C. 소결론	40
V. 결 론	42
참고문헌	44

I. 서론

A. 연구동기와 목적

칭의(稱義)에 관한 종교개혁자들과 로마카톨릭¹⁾의 견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상이(相異)하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Justification by faith alone)”는 칭의교리를 강조한 루터(Martin Luther)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1545-1563)를 개최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그전과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였다. 칭의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카톨릭 내에는 커다란 공의회가 두 차례 더 있었는데,²⁾ 두 공의회 모두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가장 최근의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회의(1964)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카톨릭의 칭의관은 트렌트신조 이후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³⁾

그런데 문제는 이 점, 곧 구교로부터 신교를 낳게 했던 칭의관의 차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것은 오히려 가볍지 않다 못해 교회의 사활(死活)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전(全) 교리가 이것에 의존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수적인 교의(敎義)이다. 이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칭의교리에 관한 사안(事案)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

1) 이하 로마카톨릭의 명칭은 카톨릭으로 통일한다.

2)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1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4년)가 그것이다.

3) 칭의에 관한 오늘날까지의 우리와 카톨릭의 입장 흐름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Philip H. Eveso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석기신.신호섭 공역, *칭의론 논쟁*(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1)을 참조하라. 이 책에서 저자는 칭의에 관한 현대적 이슈(issue), 즉 “종교개혁자와 카톨릭의 칭의 견해가 서로 다르지 않다. 단지 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종교개혁은 오해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문제로 제기하고 논의를 풀어간다. 아울러 화이트(N. T. Wright)나 샌더스(E. P. Sanders), 그리고 던(James Dunn)과 같은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개신교나 천주교 모두 1세기 바울의 유대주의와 칭의교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적으로 비평한다.

서 종교개혁의 정신, 곧 성경 중심의 신학을 추구하고 성경에 기초해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적 칭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논고는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우리 사이의 칭의관에 있어서의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으로써 오직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칭의관을 재확인하고, 이를 보다 더 견고히 다지고자 한다. 더욱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칭의에 관한 그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연구는 절실히 요청된다.

B. 연구방법 및 과정

종교개혁 당시의 칭의에 관한 종교개혁자와 카톨릭과의 입장 차이를 각각 칼빈의 견해⁴⁾와 트렌트신조의 비교,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칼빈의 견해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는 기독교강요로만 제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칭의에 관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칭의의 기본개념과 성경의 용례를 정리해 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트렌트신조를 통한 카톨릭의 칭의관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칼빈의 칭의개념과 카톨릭의 칭의개념을 비교할 것인데, 주로 대조에 의한 방법으로 이 둘의 견해가 확연히 다를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로써 카톨릭과는 명백히 다른, 성경에 올바르게 입각한 우리의 칭의관을 잘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칭의에 관한 우리와 카톨릭의 입장의 명백한 차이가 당시 종교개혁의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따라서 종교개혁은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더 나아가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칭의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마무리 짓고자 한다.

4) 종교개혁사상을 다룸에 있어, 이신칭의(以信稱義)를 강력히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다뤄야 마땅하지만, 루터와 칼빈의 칭의개념이 서로 유사하므로 칼빈으로써 종교개혁의 칭의에 관한 견해를 대변하였다. 이형기는 그의 책에서 루터신학의 중심사상인 이신칭의 교리를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다만 칼빈의 독특성은 루터에 비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더 무게를 두어 다룬다는 점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p. 126.

II. 칭의에 관한 칼빈의 견해

A. 칭의교리의 위치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소유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받는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되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칭의를 다룸에 있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칭의의 문제야말로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세울 기초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세울 기초도 없다.

따라서 칭의의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⁵⁾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교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칭의교리는 단순히 여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칭의교리와 함께 교회는 서기도 넘어지기도 하며, 교회의 전 교리가 의존해 있는 신앙의 근본적이고 주된 조항이다.”⁶⁾

⁵⁾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ook 3*.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chap.11, para.1. 이하 기독교강요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표기한다.

⁶⁾ WA 40 III, 335, 352.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p. 253에서 인용.

B. 칭의의 기본개념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자기의 의로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 불의(不義)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므로 죄인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거기 있기 마련이다.⁷⁾ 그런데 죄인의 처지가 아니라 의인의 처지에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할 때에도 그 사람은 견고히 서 있게 된다. 가령 무죄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재판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그의 무죄함이 재판관 앞에서 인정되면, 그를 가리켜 재판관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내지 법적용어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인의 무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기의 의(義)를 입증해주는 확인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이다.

1. 칭의의 정의: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 선언’⁸⁾

칭의라는 말은 법정(法廷) 용어로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결해 주는 선언(宣言)이다.⁹⁾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의인(義人)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판결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된다.

바울은 말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⁷⁾ Calvin, *op. cit.*, xi. 2.

⁸⁾ 칭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의 개혁신학자들- 윌리엄 에임스, 찰스 핫지,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벨코프, 존 머레이, 그리고 최근의 로버트 레이몬드 등- 은 모두 칼빈과 마찬가지로 법정적 선언 개념으로 정의한다.

⁹⁾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종두 편저, 기독교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p. 138.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3,34).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고발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변호하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는가?”의 의미이다.¹⁰⁾ 곧,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고소자 사탄에 의해 고소당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호하신다. 그리고 재판장의 의롭다 하시는 최종 판정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논의 전체 근원을 이루는 사실인 바, 우리의 논의가 인간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 속한 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며,¹¹⁾ 따라서 ‘의롭게 하다’란 말의 의미는 “고발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하여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킨다”¹²⁾는 법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염두(念頭)해야 한다.

2. 칭의의 수단: 신앙(faith)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로 인정받기에 합당할 만큼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행위로는 의가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칭의의 수단은 과연 위의 두 진술 중 어느 것인가? 그것은 바로 뒤의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Calvin, op. cit., xi. 3.

11) Ibid., xii. 1.

12) Ibid., xi. 3.

a. 화목 제물(propitiation):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죄 사함의 관계를 논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죄인인 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모두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¹³⁾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사 59:1,2).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듯이,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에게서 돌이키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은혜의 상태로 받아들이실 수도 없고, 그와 친히 연합하실 수도 없으시다.¹⁴⁾ 그리하여 이와 같이 자기와 연합된 상태로 받아들이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수단’(和睦祭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⁵⁾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¹⁶⁾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로마서 5:19¹⁷⁾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이다.¹⁸⁾

이로써 또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값을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 피로써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셨다. 그 어떠한 대속물로도

13) Ibid., xi. 21.

14) Ibid..

15) Ibid., xi. 5.

16) 바울은 여기서 의와 화목을 서로 구분하지 않으며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칼빈은 말한다. Ibid., xi. 22.

17)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 Calvin, op. cit., Ibid..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겁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위중한 과실이기에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씻을 수가 없다. 그것을 속량하고 씻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소유한 특권’이다.¹⁹⁾

b.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

바울은 이 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곧,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다.²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확증하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곧,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轉嫁)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사면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그가 의로운 것이다.²¹⁾ 따라서 우리의 의는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칼빈은 말한다:

자기 바깥에서 의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²²⁾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가 죄로 정하여져서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가르침(롬 8:3,4)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전가’에 의하여 ‘의’를 얻은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다.

19) Ibid., x vi. 4.

20) Ibid., xi. 22.

21) Ibid., xi. 23.

22) Ibid..

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와 함께 놀랍게 나누고 계시므로, 그는 이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부여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도록 하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두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순종처럼 우리의 것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²³⁾

이것은 과연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타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와 하고, 그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들이 덮어지고 파묻혀져야 하는 것이다.”²⁴⁾ 이에 대해 윌리엄슨(G. I. Williamson)은 “이중적인 전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과 정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고후 5:21),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일컫는 말이다.²⁵⁾

c. 믿음을 통한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에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값없이 받는다는 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예수 그리스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38,39).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 곧,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²⁶⁾ 바울은 빌립보서 3:8,9에서

23) Ibid..

24) Ibid., xi. 23.

25) G. I. Williamson, *The Shorter Catechism. vol. I & II*, 최덕성 역, 소요리문답강해(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3), p. 164.

26) Calvin, op. cit., xi. 3.

“모든 것을 …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또한 말하였다.²⁷⁾

3. 요약적 진술

우리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는 것이다.²⁸⁾ 요약해서 말하자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칭의는 “죄를 씻기는 일(the remission of sins)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신자들이 행위으로써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용납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³⁰⁾ 이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저자들 또한 성경을 토대로 그렇게 말하였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德)의 완전함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죄 사함에 있다”고 어거스틴은 말하였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되시므로 그의 공휼하심으로 사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베르나르는 말하였다.³¹⁾

27) Ibid., xi. 13.

28) Ibid., xi. 22.

29) Ibid., xi. 2.

30) xi. 22.

C. 성경의 용례

성경에는 칭의에 관한 이상의 사실을 확증해 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칭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용례를 통해 칭의에 관한 사실, 곧 칭의에 대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용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아브라함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써 제시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롬 4:3; 갈 3:6³²).³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것은(롬 4:3),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여러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이어간 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죽을 인생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순종을 율법에 드린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순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의는 여전히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의 논지를 좇아,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는 일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엡 2:9³⁴).³⁵⁾

31) Ibid..

32)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33) Calvin, op. cit., x vii. 8.

34)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35) Calvin, op. cit., x iv. 11.

아브라함 용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장차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다(창 22:16-18).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땅의 모든 나라가 그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씨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그 약속은 그 씨로 인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창 15:5; 17:1 이하 참조. 창 18:18). 그런 일이 있을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한다(창 22:3). 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다음의 약속을 받는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 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6-18).³⁶⁾ 우리는 이상에서 다음의 질문을 하게 된다: “어째서 여기서 행위를 함께 언급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한 결과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약속이 명령보다 앞선다는 것이다.³⁷⁾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받은 것이다(창 15:5; 17:1 이하).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축복들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다. 따라서 여전히 신자들이 얻을 축복의 이유는 주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없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확실히 보여주는 용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³⁸⁾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롬 4:3; 갈 3:6), 결코 행위로 말미암아 받지 않았다(롬 4:2)고 하신다.”³⁹⁾ 아울러 칼빈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⁴⁰⁾

36) Ibid., x viii. 2.

37) Ibid..

38) Ibid..

39) Ibid., xi. 13.

40) Ibid., x vii. 11.

2. 다윗

다윗 역시 자신의 의가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삼상 26:23)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공로(功勞)에 따라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의 사악함과 비교할 때에 자신의 무죄함이 크다는 것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말이다.⁴¹⁾ 또 다른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 손의 깨끗함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았음을 선포한다(삼하 22:21; 참조. 시 18:20). 그러면서도 그는 곧바로 이어 그 상급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한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삼하 22:20)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 모든 선행의 근원이 되는 값없는 하나님의 공휟하심을 높이는 것이다.⁴²⁾

또한 시편 15:1이하⁴³⁾의 말씀은 주님의 공휟하심을 이루는 일이 신자들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올바른 행실로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뿐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善)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속에서 그의 자녀된 참된 표지(標識)를 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 15:1; 24:4).⁴⁴⁾

41) Ibid., x vii. 14.

42) Ibid., x vii. 5.

43)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4]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44) Calvin, op. cit. x vii. 6.

신자의 의(義)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다.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용서로 말미암아 유지되지 않는 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진술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시 119:76).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심판주(審判主)께 긍휼히 여겨주심 밖에는 간구할 게 없는 것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2).⁴⁵⁾ 다윗은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자각(自覺)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기억하고서 곧바로 그 상급을 무효화시키는 죄를 떠올리는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시 25:10)라고 말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시 25:11)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편 19:12에서는 율법의 유익함을 높이 찬양하면서도 곧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⁴⁶⁾

이상의 다윗 용례를 통해 타인과 비교하여 아무리 자신이 상대적인 의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엄준한 심판대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두고 자기들의 무죄함을 토로하고 불경한 자들의 외식을 책(責)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홀로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로 할 때에는 그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시 130:3).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불신하여 다음과 같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시 63:3).⁴⁷⁾

45) Ibid., x iv. 16.

46) Ibid., x vii. 2.

다윗의 용례를 통한 최종결론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윗의 진술을 특별히 강조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 4:7,8; 참조. 시 32:1,2).

3.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용례를 통해 우리는 칭의에 관하여서 죄사함,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의의 전가, 그리고 행위의 칭의에 대한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a. 칭의와 죄사함(remission)

사도 바울의 말씀들 가운데 칭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용납’과 ‘의의 전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의의 전가는 또한 ‘죄 사함’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⁴⁸⁾ 또한 칭의는 ‘화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⁴⁹⁾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1:5,⁵⁰⁾에서 “거저 주신다”는 단어를 칭의와 같은 의미로 사

47) Ibid., x vii. 14.

48) 여기서 포함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므로 의의 전가는 죄 사함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49)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준수 편역, 디지털기독교강요(서울: 규장문화사, 2002), p. 337. 그는 칼빈이 언급한 사도 바울의 칭의에 관한 다른 표현들을 각각 용납, 의의 전가와 죄 사함 그리고 화해로 잘 의역하였다.

50)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용한다. 아울러 로마서 3:24⁵¹⁾도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로마서 4장에서 그는 먼저 칭의를 가리켜 “의의 전가”로 부르고 있고, 그것을 ‘죄 사함’ 속에 포함시킨다. 바울은 로마서 4:6-8에서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곧, 의를 전가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6-8; 시 32:1). 그는 여기서 시편 32:1⁵²⁾을 인용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윗이 제시하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가 말하는 의란 ‘죄의 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⁵³⁾

의가 ‘죄의 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곳은 고린도후서 5:18,19⁵⁴⁾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21의 ‘화목하게 하다’는 ‘의롭다 하다’와 동일한 것이다.⁵⁵⁾ “바울은 여기서 ‘의’와 ‘화목’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암시하여 준다.⁵⁶⁾

우리는 이상 바울이 말하는 칭의에 관해 죄사함과 화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이 화목은 오직 죄 사함에 있다.”⁵⁷⁾

5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2)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53) Calvin, op. cit., xi. 2.

54)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55) Calvin, op. cit., xi. 4.

56) Ibid., xi. 22.

이제는 이 진술이 얼마나 사실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흠과 티를 씻음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결국 그러한 의는 한 마디로 “죄 사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⁵⁸⁾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구원의 요체를 말할 때 이러한 규례를 그대로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맺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38,39). “사도는 여기서 ‘죄 사함’과 ‘의’를 서로 긴밀하게 연관지어 그 둘이 서로 동일(同一)한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⁵⁹⁾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었다(고후 5:21).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다.⁶⁰⁾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⁶¹⁾ 이것은 의의 근원(根源)을 오직 ‘그리스도 육체 안’에만 둬야 의미한다.⁶²⁾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에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이다(롬 5:19⁶³⁾).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순종하신 것 외에는(빌 2:7⁶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57) Ibid..

58) Ibid., xi. 21.

59) Ibid., xi. 22.

60) Ibid..

61) 칼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5:19 말씀, 곧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가르침을 제시한다. Calvin. xi. 4.

62) Ibid., p. 263.

63)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64)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곧, ‘그의 육체 안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⁶⁵⁾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 이러한 죄 사함과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곧 그의 순종하심’에 있다고 덧붙일 수 있다.

b. 칭의와 행위⁶⁶⁾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과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조함에 있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든 간에 모든 행위는 제외된다고(갈 3:11,12⁶⁷⁾)말한다. “그는 율법이 명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의 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의’라고 가르친다.(롬 10,5,9)”⁶⁸⁾ 바울은 행위를 보수를 받는 근거로 내어놓지 않는 곳에, 바로 ‘믿음의 의’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다음의 말씀을 제시 한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4,5). 행위와 칭의의 관계에 관한 이보다 더 분명한 진술은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곧, 보수를 요구할 만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공로가 없이 오직 은혜로써 의가 베풀어지는 경우에만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일컫는다.⁶⁹⁾ 바울은 조금 뒤에 가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롬 4:16)고 덧붙인다. 이는 믿음이 행위의 도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⁷⁰⁾ 그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65) Calvin, op. cit., xi. 9.

66) 행위와 칭의 그리고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다룬다.

67)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68) Calvin, op. cit., xi. 13.

69) Ibid., xi. 20.

70) Ibid., xi. 8.

(롬 3:21)고 말한다. 이제 바울은 율법을 제외시킴과 동시에 우리가 행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른다는 것도 부인한다.⁷¹⁾ 이것은 모든 것을 오직 믿음에만 연관짓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들은 이 사실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⁷²⁾ ‘믿음’이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의는 결국 행위에 대한 보속(補贖)이 아니며, 행위 없이 얻어지는 것이다(롬 4:4,5).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다(롬 3:27⁷³⁾).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갈 3:21,22). 결론적으로 사도는 갈 2:16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하여 설명한다.⁷⁴⁾

이상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사실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에 있어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빌 3:4-8⁷⁵⁾).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

71) Ibid., xi. 18.

72) Ibid..

73)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74) Calvin, op. cit., x vii. 2.

75)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

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바울의 요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서 속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상당한 비중 또한 가진다.

4. 성경적 칭의의 요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할 때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보게 한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우선, 하나님은 죄인의 비참한 처지 외에는 자신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황송하게도 자신의 순결하고도 값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으로 그 죄인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시는 것이다. 친히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깨닫는 지각을 죄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에 대해 절망을 갖게 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하신다. 죄인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증보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보관되어있는 ‘영원한 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⁷⁶⁾

죄인이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인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대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다. 죄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⁷⁶⁾ Calvin, op. cit., xi. 16.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Ⅲ.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견해

앞서 밝혔듯이,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까지 카톨릭 내에는 커다란 3개의 회의가 있다. 그것들을 각각 나열하면 트렌트 공의회(1545-1563),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1),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이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제정된 법령은 1564년 로마교황에 의해 공인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칭의 교리의 문제를 재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⁷⁷⁾ 아울러 1992년도에 출판된 카톨릭교회의 두 번째 권위 있는 요리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Geoffery Chapman)⁷⁸⁾역시 “칭의 교리에 대한 로마카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트렌트신조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⁷⁹⁾

따라서 우리의 논의, 곧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견해는 트렌트신조의 칭의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A. 트렌트신조 (1545-1563년)

이 회의는 1545년 12월에서 1563년 12월까지 간헐적으로 열렸다. 천주교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는 장장 18년 동안 25회에 걸쳐 열렸다.

77)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조차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 공의회는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특별한 중요성이 신적계시, 교회, 그리고 에큐메니즘에 대한 칙령에 돌려지는데, 그 중 에큐메니즘에 대한 교서에도 카톨릭교회가 내세우는 특별한 주장 중에 어느 것 하나 포기되지 않았다. 카톨릭 전통의 기초 위에서 다른 교회들을 향한 개방을 행한 것이다.” Lohse(1928~), op. cit., p. 332.

78) 첫 번째 확정적인 요리문답서는 트렌트 공의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566년에 나왔다.

79) Eveson, op. cit., p. 125.

그리고 제정된 법령은 그 후 400년 동안 카톨릭교회의 조직과 교의에 영향을 미쳤다. 쟁론을 일으키는 교의에 대해서 상세한 토론이 회의 중 이어졌는데, 개신교의 모든 관점들은 거절되었고 반면, 카톨릭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는 거듭 표명되었다.⁸⁰⁾ 칭의교리에 대한 법령의 최종적 낭독은 제4차 회기에서 이뤄졌는데 이것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다음의 세 가지 주제들은 당시 대표자들을 골머리 앓게 했고 논의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다: 그 중 첫째는 ‘칭의를 준비키 위해 인간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중세기에 발달된 로마카톨릭의 복잡한 공적(공로) 교리(Doctrine of Merit)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의의 전가 교리’에 관한 것이다. 어거스틴 군대의 감독인 세리판도(Seripando) 추기경은 이 교리가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셋째는 ‘보증(assurance)’에 관한 문제이다.⁸¹⁾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된 교서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자.

1. 칭의교리 내용

로마카톨릭 교회 공의회 역사상, ‘가장 공들인’ 칭의교리에 관한 법령이 본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 법령은 전체 16장으로 제시되었다. 이 교리적 장들은 그들이 해석했던 칭의의 3단계와 일치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1-9장)는 ‘최초의 칭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최초의’ 칭의는 세례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신분(지위)뿐 아니라, 본성까지도 교정하는 의미로 묘사되어 있다. **제2부(10-13장)는 소위 ‘두 번째 칭의’로 소개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의로워진 사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칭의의 진보’이다. 심판의 날에 발생하는 ‘마지막 칭의’를 향하여 그의 육체를 날마다 죽이며, ‘성화를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고,

⁸⁰⁾ Taiwan Gospel Book Room(대만복음서원) ed, *Journey through the Christian History for Two Thousand Years*, 2000년 교회사순례(한국복음서원 역, 서울: 한국복음서원, 2005), p. 103.

⁸¹⁾ Eveson, op. cit., p. 123.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동한다고 말한다. 또한 카톨릭교회법은 하나님 명령 준수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칭의에 있어서의 믿음 뿐 아니라 행위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며, 개혁신학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선물’을 예정 교리에 근거한 경솔한 추론(rash pre-sumption)이라고 비난한다. 제3부(14-16장)는 일상의 사소한 죄에 반하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칭의의 은혜에서 떨어져나갈 수 있음’과, ‘고해 성사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16장의 최종 결론은 ‘칭의 교리에 관한 공의회 교훈’을 “신실하고 확실하게” 수용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프로테스탄트의 칭의 교리’를 수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파문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무서운 저주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⁸²⁾ 이것이 트레نت신조의 칭의에 관한 주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칭의에 관한 트레نت신조의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살펴보자.

a. ‘은총의 상태’로의 이전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의 이전이다”(c.4).⁸³⁾

이러한 이전(移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맨 처음,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감화를 준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를 향한 것이며 ‘자기가 거기에 동의하고 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름으로 이끄는 어떠한 공적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선행은총’은 인간을 자극하고 그를 도와 그가 자기의 칭의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umwendet)도록’ 역사한다. 이것은 사람이 은총에 동의하고 그 은총과 함께

⁸²⁾ Ibid., pp. 124-125.

⁸³⁾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란 인간이 ‘첫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는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그리고 제 2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상태’로의 이전(Hinüberbringen, translatio)이라고 로제는 말한다. Lohse, op. cit., p. 250.

일함으로 일어난다. 곧 이 방식으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칭의를 준비한다 ... 그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신앙과 사랑’이다.⁸⁴⁾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종교개혁의 ‘sola gratia’(오직 은혜로)가 거부되는 것이다.⁸⁵⁾

b.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

“그것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은총과 은사들의 자발적인 수납을 통한 내적 인간의 성화와 중생이다. 그러므로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c.7).

이 성질(dispositio)은 바로 칭의 뒤에 생긴다. 곧, 둘째 단계,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가 따르게 된다. 칭의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발적인 수납⁸⁶⁾을 통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칭의는 사람에게 은총을 부여하는 성례전을 통하여 그에게 나누어지며 이 은총은 인간 속에서 새로운 질(質)로 이끈다. 이 규정이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공동역사(Mitwirkung)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⁸⁷⁾

84) 로제(von Bernhard Lohse)가 인용. Ibid., p. 250.

85) Neve, op. cit., p. 630.

86) 이는 카톨릭 칭의교리에서 흔히 말하는 “의의 주입”을 일컫는 말이다.

87) 로제가 인용. Lohse, op. cit., pp. 250-251. 이에 대해 잠시 루터의 견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견해와 트렌트신조와는 중대한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칭의는 성례전과 결부되어 있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간을 향하시는 은총의 성격이 상실된다. 그 대신 은총은 물적 존재유형적(dinglich-seinshaft)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구원의 신앙의 필연성이 후퇴된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신인협력이 강하게 제한되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트렌트 칭의칙령에 대해 제기해야만 하는 가장 진지한 비난은 ‘칭의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물음’으로 전체적 방향이 바뀌어진 점,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칭의와 구원의 확신성의 근거에 관한 신학적 물음들을 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렌트 회의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죄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의(義)가 들려지며 이 의는 오로지 신앙(信仰)에서만 포착된다는 루터의 견해를 단지 하잘 것 없는 자기신뢰라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라는 개념은 프로테스탄트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부인되었다:

인간의 ‘실제적인 도덕적 변화’는 칭의⁸⁸⁾에 속하는 것인 동시에 그 중심요소이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보면 칭의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소망과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은 단지 인간의 구원의 근거와 기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과 사랑이 부가되지 않는 한, 신앙은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결합(結合)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산 지체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⁸⁹⁾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per fidem)라는 용어로 ‘신앙’만이 칭의의 모든 기반과 뿌리가 되고, “무상으로”라는 용어로 ‘칭의에 앞선’ 신앙과 행위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고 이해한 것과 구별된 것이다. 아울러 그가 말한 “행위들이 없이”(sine operibus)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음을 보게 된다.⁹⁰⁾

c. 선행을 통한 칭의의 보존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회의 규례들의 순종, 그리고 선행들에 의해 협력하는 신앙 등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받게 된 의에서 성장하게 되며, 더욱 의롭게 된다”(c.10).

칭의의 은총은 계명들의 순종과 선행들을 통하여 보존된다. 이 수단들에 의해 칭의은총의 증가도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협동’은 “의인(義認)이 인간의 협동적 노력과 선한 행위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 진술에서 분명히 나타났다.⁹¹⁾ “칭의

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Ibid., p. 251.

88) 또는 의인(義認).

89) 니브(J. L. Neve)가 인용. Neve, op. cit., p. 631.

90) Seeberg, op. cit., p. 599.

91) Neve. op. cit., p. 631.

받은 사람의 ‘선행들’은 또한 자신의 ‘공로들’이 되며, 마찬가지로 영생에 이르는 공로도 된다”(can. 32).⁹²⁾

d. 칭의의 상실 가능성

“그러나 칭의의 은총은 불신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대죄에 의해서도 상실될 수가 있다”(c.15).(그러나 참회의 예전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다.⁹³⁾)

칭의는 상실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칭의의 근거를 신앙과 선행에 두기 때문에 칭의의 성격은 현재적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사죄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확실히 죄는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하여지나, 죄사함에 대한 신뢰와 확신성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사해진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 어떤 의심도 품지 말고 그들이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아니 된다(can. 9). ‘신앙을 통해서만 칭의’가 얻어질 수 있다는 이해는 거절된다. 왜냐하면 어떤 오류도 포함할 수 없는 신앙의 확실성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희망은 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⁹⁴⁾

그리하여 “카톨릭주의의 진정한 마음가짐은 두려움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성질”이라고 말한다(그레고리 1세). 트레트신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피할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념을 허황되고 이단적인 것이라 하여 배격하였다.

92)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유에서만 공적이 된다고 니브(Neve)는 바르게 지적한다. 제베르크(Reinhold Seeberg)는 이로써 “로마카톨릭의 옛 입장들 -스콜라주의 견해- 이 하나도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음은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93) Neve, op. cit., pp. 631-632.

94) 로제가 인용. Lohse, op. cit., p. 252. 사실상 트레트 공의회는 구원의 확실성을 거절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2. 요약 및 평가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 이전에 견지했던 관점들을 강력하게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교리적 입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포하였다.⁹⁵⁾ 그 신조는 개신교 교리를 분명하고도 결정적으로 거부하면서 중세기의 논쟁 문제들을 ‘막연하게’ 다루었다. 칭의교리는 선행의 여지를 남기는 묘한 정의를 했다.⁹⁶⁾ 그들은 의로워진다는 것의 본질에 관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멜란히톤의 견해, 곧 ‘의롭다고 선언되는 사건’과 ‘의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날카롭게 구별하여 전자는 ‘칭의’, 후자를 ‘성화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서는 통탄스럽게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비난하였다.⁹⁷⁾ 원죄는 세례로 사함을 받는다. 자범죄는 은혜의 방편인 7가지 성례를 잘 이용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구원은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얻는다.⁹⁸⁾

이상의 트렌트신조의 칭의교리의 요약에 이어, 이제는 교리사학자들이 내리는 평가로써 이들의 견해에 대해 결론지어 보자.

a. 로제 (von Bernhard Lohse)

교리사학자 로제는 “트렌트에서의 그 답변 -무엇보다도 세 가지 문제, 곧 성서와 전통의 관계, 칭의교리,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면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칭의교리도 역시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⁹⁹⁾

⁹⁵⁾ A. M. Renwick, A. M. Harman, *The Story of the Church*, 오창윤 역, 간추린 교회사(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p. 145.

⁹⁶⁾ Williston Walker,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류형기 역, 기독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5), p. 452.

⁹⁷⁾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 입문(서울: 성광문화사, 2002), pp. 139-140.

⁹⁸⁾ 김의환, 기독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83), p. 298.

⁹⁹⁾ Lohse, op. cit., p. 247.

b. 니브 (J. L. Neve)

위의 트레트신조 칭의교리 진술에 대해 그는 다음의 것들 곧, 종교개혁의 ‘오직 은혜’ 사상이 손상된 점, ‘칭의의 법정적 개념’이 이단으로 정죄된 점, 바울이 강조한 공적 없이 ‘오직 신앙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개념’에 소망과 사랑이 첨가된 점, 칭의에 있어 인간의 협동과 그 행위를 강조한 점, ‘구원의 확신’이라는 태도를 배격한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트레트신조 칭의교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¹⁰⁰⁾

c. 제베르크 (Reinhold Seeberg)

앞서 잠시 언급되었듯, 그는 “이상의 것들은 교리적으로 평범한 스콜라주의 견해들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의 수납이 이제는 칭의에 대한 필수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¹⁰¹⁾고 지적하였다. 이 말은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견해가 결국 스콜라주의 견해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확증하여 준다.

d. 요약적 결론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트레트신조 칭의교리는 ‘스콜라주의의 단순한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이상의 트레트 공의회 결의 또는 스콜라주의 견해를 종교개혁 칭의교리를 대변하는 칼빈의 견해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¹⁰⁰⁾ Neve, op. cit., p. 631.

¹⁰¹⁾ Seeberg, op. cit., p. 601.

IV. 칼빈의 견해와 카톨릭 견해의 비교

본 장에서는 칼빈의 견해와 카톨릭의 견해간의 차이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견해가 가진 차이점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카톨릭 칭의교리가 우리와 가지는 공통점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할 필요는 있겠다.

A. 공통점에 관한 진술

트렌트 공의회가 루터의 교훈뿐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를 좌절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음을 상기할 것을 입슨(Phillip E. Eveson)은 지적한다.¹⁰²⁾ 펠라기우스 이단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교훈한 이단이다. 입슨은 다음과 같은 뷰캐넌(J. Buchanan)의 글¹⁰³⁾을 인용하여 카톨릭과 우리 사이의 유사점을 밝힌다: “공의회는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기 위해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 상태를 바르게 진술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필요성을 바르게 선포했다.”¹⁰⁴⁾ 물론 이것은 칭의의 시작에 있어서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오류투성이의 원리들로 중화’되었고 그 결과 ‘약간의 진리와 대단히 많은 오류의 혼합물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¹⁰⁵⁾

입슨은 카톨릭의 최근의 요리문답서¹⁰⁶⁾ 칭의교리 부분에서도 역시 펠라기우스

102) Ibid., p. 126.

103) “J. Buchana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961. p. 155 f.” 인용. Ibid..

104) Ibid, pp. 126-127.

105) Ibid..

106) 입슨은 카톨릭의 최근의 요리문답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한 가지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이단을 정죄하고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그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며, 영생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도움의 은총이다.” 그들은 또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확증한다 “악인의 칭의는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택자의 구원과 칭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⁷⁾ 그러나 이에 대해 입슨은 이어서 말하기를,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진술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카톨릭의 다른 진술들은 성경적 진리에 전혀 반(反)하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파기(破棄)하고 있다.”¹⁰⁸⁾

칼빈 또한 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칭의의 시작”이야말로 우리와 카톨릭 간의 공통점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우리와 카톨릭 사이의 논지의 핵심을 말한다:

칭의의 시작이란 곧, 죄인이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아 정죄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의를 얻는다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그들이 ‘칭의’라는 용어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갱신의 역사’(renewal)를 포함시키는 것이 다를 뿐이다.¹⁰⁹⁾

바로 이점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명백한 진술인 것이다: 공통점인즉, 칭의란 위의 칼빈의 진술처럼,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의를 얻는 것이다. 아울러 죄인이 의롭게 되는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최근의 요리문답서에도 같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몇몇 로마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재해석하고 부인할 때, 요리문답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동정녀 탄생, 신체적 부활과 승천, 그리고 미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Ibid., p. 127.

¹⁰⁷⁾ "Catechism, pp. 433-434."인용. Ibid..

¹⁰⁸⁾ Ibid., pp. 127-128.

¹⁰⁹⁾ Ibid..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칭의를 바울의 논지를 따라 ‘죄인을 의롭다하시느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해하는데 반해, 그들은 “갱신의 역사” 즉, 일종의 “변환”¹¹⁰⁾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귀결 된다: 곧,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결국 칭의의 ‘개념’ 또는 ‘정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트렌트 신조와 칼빈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B. 차이점에 관한 진술 - 카톨릭 : 칼빈

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카톨릭의 제2요리문답서(Catechism, 1992년)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제정된 법령은 1564년 로마교황에 의해 공인되었고 1566년 카톨릭교회의 첫 번째 확정적인 요리문답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최근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칭의교리의 문제를 재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사실은 이미 앞서서도 지적하였기에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1566년 이후 카톨릭의 권위 있는 두 번째 요리문답서가 1992년에 나온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최근의 요리문답서 역시 트렌트 결의 내용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¹¹¹⁾ 입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최근의 문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칭의교리에 대한 로마카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16세기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이 요리문답서는 칭의교리의 법령에 대한 트렌트 공의회 경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¹¹²⁾

110) “칭의란 불의에서 의로의 변환(transition)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행위(judicial act)이다.” Ibid., p. 150.

111) Ibid.. 한편, 이 요리문답서는 영어번역권에서는 1994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112) Ibid., pp. 125-126.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카톨릭의 가장 최근의 교리서이면서, ‘칭의에 관한 트렌트 신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¹¹³⁾ 이 문서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¹¹⁴⁾ 칭의에 관한 양자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먼저 카톨릭의 견해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칼빈, 곧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

카톨릭은 칭의를 내성(inner being)을 변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 속에다 주입(infusion)시키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마니교(Manichaeism)의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형성시키는 것이다.¹¹⁵⁾ 어거스틴은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의가 녹아 들어온다고 하였다. 바로 이점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어거스틴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점이다.¹¹⁶⁾ 종교개혁자들은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를 어거스틴과 중세 철학자들이 가정했던 ‘의로운 사람을 만들다’의 의미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다’는 의미로 바르게 이해했다.¹¹⁷⁾ 사실상 이것은 칭의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던 중세 철학자들과 어거스틴 교훈으로부터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다.¹¹⁸⁾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점진적인 칭의 개념을 거부한다. 칭의는 순간적이고 완전한 것이다.¹¹⁹⁾ 칭의가 중생(=성화)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은 구별된다는

113) 제2요리문답서는 카톨릭 칭의관의 최근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요리문답서에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로마카톨릭의 칭의관이 트렌트 회의 이후 일체의 수정없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14) 입슨(Eveson)의 저서, 『칭의론 논쟁』에서 정리된 로마카톨릭의 현대적 가르침 부분을 참조하였다. Eveson, op. cit., pp. 122-136.

115) Calvin, op. cit., xi. 5.

116) 김종두, op. cit., p. 137.

117) Eveson, op. cit., p. 99.

118) McGrath, *Iustitia Dei, Vol. I.* 인용. Ibid., p. 100.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의 자국이 의인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은 경험으로도 매우 잘 알 수 있는 사실 이므로, 그 의인들의 칭의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참조 롬 6:4¹²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 속에서 시작하시고 삶의 전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아주 더디게- 이루어가시 므로,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¹²¹⁾

2. ‘의의 전가’ 개념 정죄

따라서 트렌트신조는 신(信)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독립된 의’라고 루터가 칭했던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의에 기초하여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 되어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정죄하였다.

칼빈은 로마서 3:24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를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의가 생겨나는 질료적 원인(material cause)¹²²⁾을 보게 됨을 말한다. 그리고 로마서 3:25 말씀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단적 원인을 보게 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롬 3:16의

¹¹⁹⁾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공역, 벌코프조직신학(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p. 764-765.

¹²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¹²¹⁾ Calvin, op. cit., xi. 11.

¹²²⁾ 칼빈은 철학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 네 종류의 원인들이 있다고 가정하여 말하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효적 원인(efficient cause)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베푸시는 사랑이고 목적적 원인(final cause)은 하나님의 공의 입증, 그분의 선하심 찬양이며 질료적 원인(material cause)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수단적 원인(formal or instrumental cause)은 믿음이라고 설명한다. Ibid., x iv. 17.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목적적 원인을 발견케 됨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째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자랑하느냐”고 반문한다.¹²³⁾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당연히 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상태인데도 그들은 그들의 “외부”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이다.”¹²⁴⁾ 바로 여기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가 말하는 신자에게 전가(imputation)되는 그리스도의 독립된 의는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의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the alien righteousness of Christ)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그 의(the righteousness)는 거듭 말하지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Jesus Christ's)인 것이다.

3. 믿음은 신적 진리에 대한 인간의¹²⁵⁾ 동의적 행동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는 협동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류 가운데 의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서로 너무나 달라서, 그 중 하나가 세워지면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¹²⁶⁾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든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때는 이미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순

¹²³⁾ Ibid..

¹²⁴⁾ Ibid., xi. 11.

¹²⁵⁾ 본문에는 “지성인들의”라고 쓰여 있다. Eveson, op. cit., p.

¹²⁶⁾ Calvin, op. cit., x iv. 11.

중을 드린 후이다. 그러나 그의 의는 여전히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논지를 따라 그 일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앞서 결론지었던 것이다(엡 2:9¹²⁷).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라고 말할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약속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²⁸)

바로 이처럼 행위는 의에 전혀 관여되지 않으며 또 관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우리의 행위의 기여에 관한 문제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무관한 것이며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칼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효적 원인(efficient cause) - 하나님의 공활하심과 베푸시는 사랑 - 이나 목적적 원인(final cause) -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 그의 선하심 찬양 - 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질료적 원인(material cause) - 그리스도의 의¹²⁹ - 과 수단적 원인(formal or instrumental cause) - 믿음 - 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절반의 역할은 하는 것처럼 헛된 주장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성경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그의 의 혜택을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¹³⁰)

4. 칭의가 취득되는 참된 수단은 ‘세례성사’

세례는 ‘믿음의 성사(the sacrament of faith)’로 묘사되며 세례성사는 칭의의 수단이요, 통로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세례가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한

127)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28) Calvin., op. cit., Ibid..

129) 이는 다른 말로는 중보, 구속이다. Calvin, op. cit., x iv. 17.

130) Ibid..

다.¹³¹⁾

그러나 칭의가 취득되는 참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의롭게 됨과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초점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적실 수가 없으며 그 어떤 물로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고 씻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가능하다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도 절대로 속량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위중한 과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속량하고 씻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소유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친다.¹³²⁾

따라서 칭의의 수단과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특히 그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것이다.

5. 칭의와 관계있는 ‘고해성사’(Sacrament of Penance)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례 이후 파멸에 이르는 범죄를 행함으로 ‘세례적 은혜’를 상실한 자를 위한 것이며, 그로 하여금 회심케 하며 ‘칭의의 은혜’를 회복케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파멸에 이르는 죄는 치명적이어서 사람을 영원한 형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세례 받기 이전의 상태’로 전락시킨다(요리문답서).¹³³⁾ 아울러 성사에는 두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성령을 통한 회개, 고백, 참회 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와 교회에 의한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요리문답서).¹³⁴⁾

131) 요리문답서 인용. Eveson, op. cit., p. 131.

132) Calvin, op. cit., x vi. 4.

133) 트랜트신조와 마찬가지로 고해를 은혜의 상실을 의미하는 파선 이후의 두 번째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Eveson, op. cit., p. 132.

이러한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한마디로 사실상 우리 전체 논의의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는 칭의의 개념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로 지적된다. 곧 그들은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라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적 개념을 가지는 칭의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단 한번의 칭의 사건은 순간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최종적인¹³⁵⁾ 사건으로서, 칭의받은 자의 신분을 영원히 유지시켜 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제 2의 칭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위에서 거듭 밝혔듯이 칭의가 우리의 행위에 전혀 그 기원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박탈되지도 않는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칭의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손을 메울 고해성사는 애초부터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6. 나와 타인의 영생에 필요한 은혜들에 공헌 가능

“회심의 기원에 대해 그 누구도 최초의 은혜에 공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생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들에 대해 공헌할 수 있다.”¹³⁶⁾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믿음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 우리의 의를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고 하는 주장이 마치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¹³⁴⁾ 교회에 의한다는 것은 카톨릭의 주교들과 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죄를 용서함과 ‘참회의 방법’들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on behalf of God and Christ) 행동하는 것이다. Ibid..

¹³⁵⁾ 또는 “종말론적인”.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박영희 역, 바울신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p. 206.

¹³⁶⁾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ed. Geoffery Chapman, 1994을 인용. Eveson, op. cit., p. 133.

쾌재를 부르고 있다.”¹³⁷⁾ 그러나 그는 이 그릇된 주장에 대해, “만일 행위를 그 본래의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겨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행위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의 도움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³⁸⁾ 또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시작이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였다(엡 2:8,9).¹³⁹⁾ 이처럼 행위가 칭의에 있어서는 전혀 무익함을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행위를 통하여 칭의에 도달하려 하는지 또한 더 나아가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의 구원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지 실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7. 상실 가능성으로 인한 구원의 불확실성

사람이 얻은 칭의가 상실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assurance)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¹⁴⁰⁾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의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롬 4:14¹⁴¹⁾).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확고부동한 의를 세우지 않는 한, 의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¹⁴²⁾

¹³⁷⁾ Calvin, op. cit., xvii. 8.

¹³⁸⁾ Ibid..

¹³⁹⁾ Ibid., x iv. 11.

¹⁴⁰⁾ Eveson, op. cit., p. 135.

¹⁴¹⁾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율법에 속한 의가 아닌 약속에 속한 믿음의 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세워 그분의 심판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정한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¹⁴³⁾

사도 바울 또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롬 4:7; 참조. 시 32:1)에 관한 다윗의 말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신자들은 이러한 복을 단 한번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¹⁴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5:1)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양심이 평안과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확신의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는 것”(롬 5:5)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5,39¹⁴⁵⁾)¹⁴⁶⁾

따라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칭의는 상실되지 않는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며 따라서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보증(保證)이 되신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순결함으로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추악하고 부정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우리 탓으로 돌려지지 않고 마치 땅에 묻혀진 것처럼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거론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분명하게 멸

142) Calvin, op. cit., x iii. 3.

143) Ibid..

144) Ibid., x iv. 11.

145)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46) Calvin, op. cit., x iii. 5.

하여질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새 아담과의 복된 평안 속으로 이끄실 것이다(고전 15:45이하).¹⁴⁷⁾ …… 따라서 신자의 평생 동안, 이 의외에 다른 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중보자로 남아 계셔서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시키시고 계시며, 그의 죽으심이 또한 영구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⁴⁸⁾

바로 이 같은 진정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 의는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평안히 그리고 확실히 인도하여 준다. 우리의 칭의가 견고(堅固)하다는 사실, 곧 구원의 보증(assurance)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다.

C. 소결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톨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칭의에 관한 견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곧, 칭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다섯 가지로 요약,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적이며 최종적인 선언이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둘째, 칭의는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며, 그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¹⁴⁷⁾ Ibid., x iv. 12.

¹⁴⁸⁾ Ibid., x iv. 11. 그리스도의 깨끗이 씻으심, 보속하심, 속죄하심, 그리고 완전한 순종하심이 우리의 모든 불법한 것들을 가리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 대신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칭의에서의 그 의는 거듭 말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오는 의이다.

셋째,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 특히 그의 피를 통해서이다.¹⁴⁹⁾

넷째, 칭의는 믿음으로 수여받으나,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칭의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칭의를 위한 행위란 없으며, 다만 행위를 위한 칭의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건, 곧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칭의로 인해 성화는 시작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칭의 이후에 장려되고 고무되는 ‘선행’인 것이다.

다섯째, 칭의는 순간적이며 최종적인 사건으로서 끝까지 유효하다.

칭의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써 박탈당할 위험은 전혀 없다. 죄책은 이미 사라졌고 의롭다함의 효력은 영구(永久)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칭의의 성격을 가리켜, ‘한번의 칭의 그러나 영원한 칭의’라고 간략하게 부를 수가 있겠다.

¹⁴⁹⁾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II(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 223.

V. 결 론

우리는 이상 칭의에 관한 카톨릭의 트렌트신조와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의 비교를 통해, 성경에 입각한 칭의의 올바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서론에서 전제(前提)하였듯이, 카톨릭의 칭의교리는 그릇된 것임을,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와는 명백히 다른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카톨릭의 트렌트신조는 성경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신학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그들은 이러한 비(非)성경적인 신학(unbiblical theology)을 지원하기 위해 오히려 성경을 역(易)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오직 성경으로”를 외쳐 부르며 개혁을 단행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는 참으로 상반(相反)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카톨릭은 말씀이 계시하는 진리에서 너무나 밖으로 나가 있다. 이점은 칭의 교리아말로 기독교신앙의 핵심교리라고 가히 일컬어진다는 사실에서 그러한데, 그들은 성경에서 계시해주지 않는 교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트렌트 이후 400년 이상이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마저도 이 교리에 대해 일체의 수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중세로부터 오늘로 이어지는 카톨릭의 신학적 풍토(風土)가 이러하므로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시 중세 로마카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개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작금에 이르기까지 신학적 개혁은 분명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단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다. 이러한 까닭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진리에 대한 고수(固守)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주신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로 이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信仰)과 신학(神學)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행동하였던 종교개혁신학을 유산으로 받았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 신학, 달리 말하면 오직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신학에 앞으로 남겨진 과제

는 명백하다:

첫째, 로마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비(非)성경적인 수많은 공격들에 대해 성경진리를 수호(守護)하는 일이다.

둘째, 칭의교리에 대한 강조를 교회 안팎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이다. 앞서 거듭 말하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하였고 루터 또한 그러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개혁신학자들의 한결같은 강조가 여기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개혁신학의 전통과 그 유산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의 최우선에 두고자 하는 정신이자, 태도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허리를 동여 메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착념해야 할 것이다. 오직 성경말씀이 가라는 데 까지 가고, 주의 말씀이 멈춰서라는 곳에 멈춰서는 말씀중심의 사람과 말씀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말씀의 사람, 진실한 말씀의 종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이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 그리고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욱 더 확고해지고, 뚜렷해지며, 커져갈 것이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義)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Sola Deo Gloria!**

Bibliography

국내서

-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원출판부, 2005.
- 김영재 편역. 신앙교육문답. 수원: 합동신학대원출판부, 2000.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출판사,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4.
- 박영관. 역사신학 강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8.
-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원세호. 천주교회란?. 서울: 국종출판사, 1984.
- 이인우. 채천석 공저. 차트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정성욱. 스피드조직신학. 서울: 흥성사, 2005.

번역서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Ames, William. *The Marrow of Theology*. 서원모 역. 신학의 정수.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이종태 역. 마틴루터의 생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Bayly Lewis. *The Practice of Piety*. 안보현. 조계광 공역. 경건의 훈련.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공역. 벨코프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벨코프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Boice, James M..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지상우 역. 기독교강요 교리설교.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종두 편저.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준수 편역. 디지털 기독교강요. 서울: 규장문화사, 2002.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ook 3*.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이형기 편역. 기독교강요요약.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Carson, Herbert M.. *Dawn or Twilight?*. 박우석 역. 천주교는 과연?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Clark, Gordon H..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 The Westminster Confession: Yesterday and Today*. 나용화 역.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 Dillenberger, John.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이형기 역. 루터저작선.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Eveson, Philip H..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석기신. 신호섭 공역. 칭의론 논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Ferguson, Sinclair B.. *The Holy Spirit*. 김재성 역. 성령. 서울: IVP, 2004.
-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종교 개혁사. 서울: 은성, 1995.
- Hodge, Charles. *The Way of Life*. 원광연 역. 생명의 길.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Jones, D. M. Lloyd. *Expositions on Romans in Eight Volumes*. Vol. 1. 서문강 역. 로마서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_____. *God the Holy Spirit*. 이순태 역. 성령 하나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Lohse, von Bernhard.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 구영철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권콜디아사, 1998.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박종순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서울: 성광문화사, 2002.
- McGrath, Alister E.. *Understanding Doctrine*. 정진오 역. 기독교교리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Milne, Bruce. *Know the Truth: A Handbook of Christian Belief*. 기독교교리핸드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Murray, John.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II. 고양: 크리스찬다이제

- 스트, 2001.
- Neve, J. L. & Heick, O. W..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1.*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Packer, J.I.. *Knowing Christianity.* 강철성 역. 기독교를 아는 지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Placher, William C..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박경수역. 기독교신학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Reymond, Robert L..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나용화 외 3인 공역. 최신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Renwick, A. M., Harman, A. M.. *The Story of the Church.* 오창윤 역. 간추린 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박영희 역. 바울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 Seeberg, Reinhold. *The History of Doctrines.* 김영배 역. 기독교교리사 (중근세편). 서울: 엠마오, 1996.
- Shafer, Francis. *The Finished Work of Christ.* 조계광 역. 로마서강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Stott, John R.. *Basic Christianity.* 황을호 역. 기독교의 기본진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Testa, Stephen L.. *Roman Catholic Church.* 조인숙 역. 천주교는 성경에 있는가?.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류형기 역. 기독교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5.
- Walton, Robert C.. *Chronological and Background Charts of Church History.* 고덕상 역. 차트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Williamson, G. I.. *The Shorter Catechism. vol. I & II.* 최덕성 역. 소요리문답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3.

국외서적

Chemnitz, Martin. *Examination of the Council of Trent*. trans. Fred Kramer. St. Louis: Concordia, 1971.

Crampton, W. Gary. *What Calvin Says: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John Calvin*. Unicoi: The Trinity Foundation, 2002.